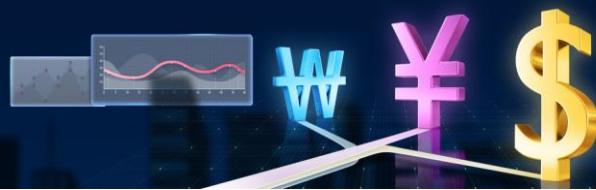


Eugene's FIIC Update (202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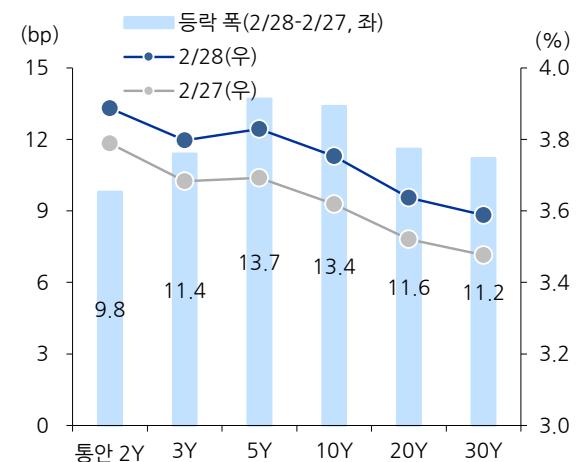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76_jhoonlee@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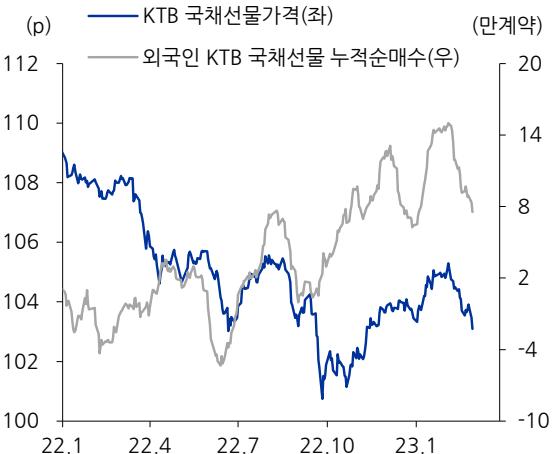
Fixed Income

		3/1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797%	11.4	17.4	7.5
	한국 국고채 10년물	3.753%	13.4	15.3	2.3
	장단기금리차(10년-3년, bp)	-4.4	-64	-23	0.8
	3년 국채 선물(KTB)	103.09	-37.0	-64.0	-36
	10년 국채선물(LKTB)	109.80	-116.0	-162.0	-15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4.891%	7.5	19.6	47.1
	미국채 10년물	3.993%	7.1	6.9	11.5
	장단기금리차(10년-2년, bp)	-89.9	-89.4	-77.2	-54.2
	독일국채 10년물	2.707%	6.2	19.0	14.2
	호주국채 10년물	3.787%	-6.8	-9.1	-26.4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 세수 부족 소식에 공급량 증가 가능성 반영.
- 개장 초 전일 미국을 따라 강세를 시도했지만 호주 1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후 강세 포지션 급감. 외국인과 은행의 국채선물 매도에 이어 국고채 20년 입찰 부담도 금리를 더욱 상승시킴.
- 기재부에서 1월 국세수입 감소와 1월 세수 진도율이 10.7%로 18년 만에 낮다고 발표. 이에 단시일 내 국고채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장기구간을 위주로 금리 추가 상승.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긴축 반영하며 금리 상승세 지속.
- 미국채 10년 금리는 장중 4%를 상회하기도 함. 독일 2월 CPI가 1월과 같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음.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도 영향.
- 금일 BOJ 정책 이사 연설 및 유로존 CPI와 실업률, ECB 의사록 등 발표. 유로존 CPI가 독일에 이어 둔화세가 확인되지 않을지 여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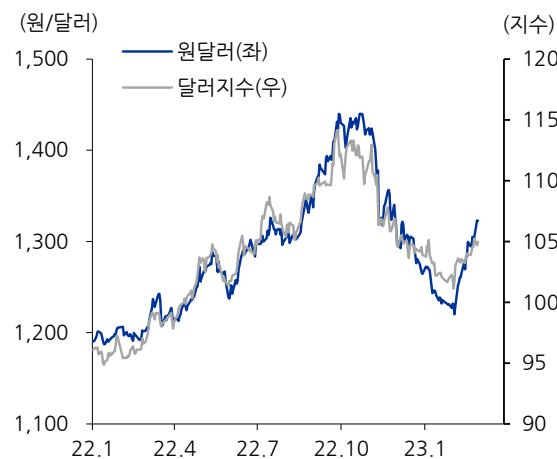


FX & Commodity		(단위: %, \$)			
		3/1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322.60	0.0%	2.1%	4.6%
	달러지수	104.42	-0.5%	-0.1%	0.9%
	달러/유로	1.067	0.8%	0.6%	-0.4%
	위안/달러(역외)	6.88	-1.0%	-0.4%	-0.6%
	엔/달러	136.20	0.0%	0.9%	3.8%
	달러/파운드	1.202	-0.1%	-0.2%	-0.6%
	해알/달러	5.18	-1.1%	0.4%	-2.0%
상품	WTI 근월물(\$)	77.73	0.9%	5.1%	-3.2%
	금 현물(\$)	1,837.32	0.6%	0.7%	0.8%
	구리 3개월물(\$)	9,135.35	1.9%	0.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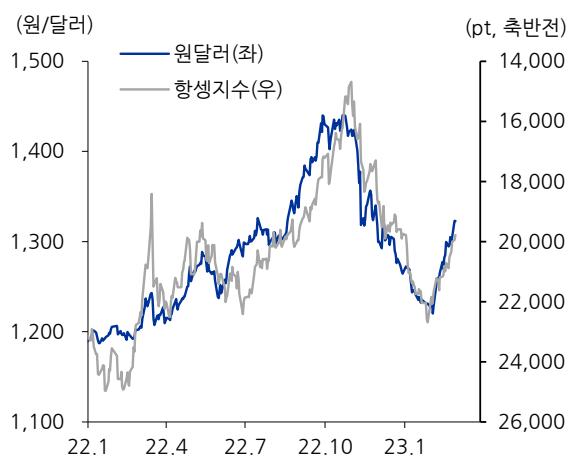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달러지수 및 달러유로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화요일 원달러 환율은 -0.40원 하락한 1,322.60원에 마감.
- 간밤 달러 강세가 되돌려지면서 원달러는 -5.0원 하락한 1,318.0원에 출발. 그러나 오후 들어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도 반등, 오후 장 한 때 전거래일 대비 상승 전환.
-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장중 달러 강세 견인. 그 외 역외 결제 물량도 유입되면서 원달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음.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0.5% 하락한 104.42 기록.
- 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는 47.7로 1월 47.4에서 소폭 반등. 특히 미국 CPI에 선행하는 가격지수가 전월 44.5에서 51.3으로 큰 폭 반등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지속.
-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2024년 중반까지 금리를 5.0~5.25% 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3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그러나 중국 PMI 급등에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달러는 하락. 2월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52.6으로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서비스업 PMI도 56.3으로 전월 54.4에서 반등. 전일 항셍 지수는 +4.2% 급등.